

밀·옥수수 등 수입 곡물가 오를 전망... 밥상물가 '비상'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식용 13.4%, 사료용 12.5% 상승으로 축산 농가, 외식업체 가격 상승 압박 연구원, "4분기부터 단가 떨어질 것"

3분기 주요 곡물의 수입 단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밥상 물가의 고공행진이 예상된다.

3일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국제 곡물 7월호' 보고서를 통해 올해 3분기(7-9월) 주요 곡물의 수입 단가가 2분기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곡물 수입단가 지수는 식용 184.8, 사료용 178.4로 각각 2분기보다 각각 13.4%, 12.5%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곡물 수입단가 지수는 주요 곡물 가격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2015년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것으로, 2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내 곡물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지만, 해당 기간 구입한 물량이 국내로 도입되는 3분기에 지수가 오른다고 예측했다.

농업관측센터 관계자는 "통상 곡물을 수입할 때 매매계약을 맺은 3~6개월이 지났을 때 대금을 지급한다"라며 "수입·유통사들이 3~6



3분기 주요 곡물의 수입 단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밥상 물가의 고공행진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월 계약 가격을 3분기에 지급하는 점과 최근 환율 급등 상황 등이 이번 전망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곡물 수입단가 지수는 지난해 4분기 이후 7분기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의 수입단가는 1t(톤)당 453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

간 대비 42.0% 상승했다. 식용옥수수는 1t당 412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36.0% 올랐다.

같은 기간 사료용 밀과 옥수수의 수입단가도 각각 24.2%, 47.8% 올랐다. 수입 곡물이 비싸지면 이를 활용하는 국내 축산 농가, 식품·외식업체도 가격 상승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 곡물의 현 시세를 나타내는 선물 가격지수는 3분기에 하락할 전망이다. 4분기부터는 수입 단가도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팀은 올해 3분기 국제 곡물 선물가격지수가 186.0으로 2분기보다 3.7%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진민 기자



경기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최대 1.5%의 이자를 지원해 고객은 최저 연 2%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새출발 농촌희망 저금리대출'을 출시했다. 경기농협 제공

경기농협, 연 2%대 금리 적용

'새출발 농촌희망 저금리대출' 출시

경기농협(본부장 김길수)은 지난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의 일환으로 금리상승기 영농자금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협중앙회가 최대 1.5%의 이자를 지원해 고객은 최저 연 2%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새출발 농촌희망 저금리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농축협 조합원, 청년창업농,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 최저 연 2%대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3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 대출 및 기존 영농자금의 대한 대출도 가능하며 1조원 한도로 한시 판매되는 기획상품으로 한도 소진 시 판매 종료된다.

농협은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 해당 상품을 통해 농업인에 저금리로 영농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2만명 대상 총 450억원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로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김길수 본부장은 "이번 영농자금 1조원에 대한 이자 지원이 농업인들께서 금리상승기 생산비 부담을 덜고 영농에만 집중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금융 지원은 물론 농가 일손돕기,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진민 기자

휘발유·경유 가격 8주 연속 상승

리터당 휘발유 21.9원, 경유 31.1원↑

(2137.7원) (2158.2원)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6.26~30)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1.9원 오른 L(리터)당 2천137.7원으로 집계됐다.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5월 첫째 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44.2원 내렸지만, 이후로는 8주 연속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1일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뒤 30일까지 날마다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전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오름세는 꺾인 상황이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제주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3.2원 오른 L당 2천 207.4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2.5원 상승한 2천107.4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평균 2천146.2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2천118.4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주 경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1.1원 오른 L당 2천158.2원을 나타냈다.

5월 12일부터 이어져 온 국내 경유 가격의 신기록 행진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 일단 멈춰 섰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은 L당 각각 2천128.84원, 2천157.70원으로 직전일보다 16.06원, 9.96원 내렸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에 온전히 반영될 때까지는 약 1~2주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다음주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국제원유 가격은 미국 상업원유 채고 감소, 주요 7개국(G7)의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추진 합의, 에콰도르의 정치적 상황 불안에 따른 석유생산 차질 등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4.8달러 오른 배럴당 112.7달러를 나타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0.5달러 내린 배럴당 147.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8.9달러 내린 배럴당 172.2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전기차 이용자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전기료 인상에 충전요금 부담 커져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 할인 포함

친환경 차 확대 위한 성과급 유지

전기료 인상에 따른 충전요금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전기차 이용자들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년 추가 연장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조치를 골자로 한 유류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연말 종료되는 일몰제였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2025년 12월까지 적용 기간이 확대된다.



전기료 인상에 따른 충전요금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전기차 이용자들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년 추가 연장된다.

연합뉴스

또한 개정안에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입돼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11차례 연장하게 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전기·수소차, 화물차의 야간 운행과 국가공공사,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

인, 경차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친환경 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성과급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차주들은 이달부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충전요금이 오르면 이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전력은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킬로와트시(kWh) 당 0원에서 5원으로 인상했다.

더불어 산업부와 환경부가 추진해 온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제도가 지난달 30일 종료되며 그 부담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료 인상과 충전요금 특례 할인 종료에 따라 7월부터 전기차 아이오니 기준으로 현재 kWh당 약 293원(환경부 급속충전기 기준)이던 급속충전 요금은 kWh당 약 313원으로 올랐다.

이진민 기자

공정위, 9년간 400억원

입찰 담합 맨홀뚜껑사에

과징금 21억원·시정명령

세계주철, 대광주철 등 5개 업체

한국전력이 진행한 맨홀 뚜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담합한 5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3일 공정위는 한국전력이 9년간 1016건, 400억원 규모로 진행한 맨홀뚜껑 입찰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세계주철, 대광주철 등에 과징금 21억 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계주철, 대광주철, 일산금속, 한국주조, 정원주철은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맨홀뚜껑 생산업체 간 상생을 위해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한전 사용 맨홀뚜껑 입찰에 참여해 담합했다.

1016건 중 조달청 발주는 12건(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입찰), 한전 발주는 1004건(경쟁입찰)이었다.

이들은 해당 기간 전화 등을 통해 각 사업자 간 누적 낙찰 물량이 비슷해지도록 낙찰



한국전력이 진행한 맨홀 뚜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담합한 5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 가격까지 담합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전체 1016건, 총 400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무려 98.1%에 달하는 997건을 낙찰 받았다.

이들은 한전이 사용하는 맨홀뚜껑의 구매 방식이 2010년 다수 공급계약으로 변경된 데다, 여러 형태 중 물림형 맨홀뚜껑 발주량 급증으로 다른 방식을 제조하던 사업자가 물림형 시장까지 진입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자 이를 피하고자 담합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사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

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세계주철에는 5억3200만원, (주)일산금속에는 5억2100만원, (주)대광주철에는 5억2700만원, (주)한국주조에는 5억800만원, (주)정원주철에는 47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현재 공정위가 운영 중인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징후를 포착해 조사·제재한 사안으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직권으로 인지해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에도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민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 커"

▶▶ 1면서 받음

신한은행은 '창업 40주년'을 맞아 10만 계좌 한도로 신한 40주년 페스타 적립금을 내놓고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하고 최고 금리가 연 4.0% 상품을 운용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2일 최고 금리가 연 3.20%인 '2022 우리 특판 정기예금'을 2조원 한도로 내놨다.

시중 은행권들의 금리 인하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이자 장사' 경고 압박과 함께 예대금리차(예금-대출리차 격차)가 7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져 은행들이 부담을 느끼며 여론 눈치 보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야 한다"라며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28일 민생물가 안정특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 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며 "금융기관들이 예대차익에 대한 솔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며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조치는 한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21일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여부'를 두고 "금리 인상의 양과 속도에 대해 데이터를 보고 금융위원들과 적절히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당분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상황을 지켜볼 것을 예고했다.

이진민 기자